

아녜스 브락스히야(테레사 수녀)의 일기

1919년

나의 일기에게,

오늘 사랑하는 아버지 **Nikola** 께서 돌아가셨다. 우리 엄마 **Drana**는 외로움과 슬픔을 겪고 계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분은 내 아버지였다. 나를 정말 이해하시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내 삶에 큰 영향을 주셨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다만 오늘 같지만 앓길 바란다. 아버지가 떠나갔다는 걸 알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남아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안다.

오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아버지를 돌봐 주세요. 오늘 저에게 공급하신 음식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녜스 브약스히야

1928년

나의 일기에게,

나는 가톨릭 선교 수녀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했다. 지금 나는 인도로 가라는 종교적 명령에 따르고 있다. 생전 가장 먼 여행이 될 것이다. 스코페에서 인도까지 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첫 번째 사명에 따라 여행하는 지금 무척 떨린다. 모두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기뻐해 주었으면 좋겠다. 가장 아쉬운 것은 집을 떠난다는 것이다. 먼 나라로 가기 위해 행복한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 내가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하느님, 제가 남기고 가는 저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녜스 브약스히아

1929년

나의 일기에게,

선교사 친구와 함께 마침내 인도에 도착했다. 친구의 이름은 베틀카이다. 정말 먼 여행이었다. 지금 인도의 거리를 걷고 있다. 가는 길에 길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보았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읽어 주었다. 모든 이야기에는 그들 모두 배울 점들이 있었다.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보금자리도 찾아 주었다. 그들이 만족스러워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하느님, 이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녜스 브락스히아

1937년

나의 일기에게,

오늘 가톨릭 선교사 수녀로서의 마지막 서원을 했다. 리지우의 테레사의 이름을 따서 테레사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오빠와 언니도 내가 무척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이제 진정한 선교사 수녀가 된 것이다. 이제 내게 남겨진 질문은 내 인생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아녜스에서 테레사로 바뀐 것은 작은 변화 같지만, 사실 큰 변화이다. 내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사용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내 이름으로 어떻게 사인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이 시점까지 왔다는 것이 뿌듯하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하느님, 모든 일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삶에서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마더 테레사

1979년

나의 일기에게,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에 대해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이런 날이 올지 몰랐었다. 상을 받았을 때 너무나 흥분되었다. 오랫동안 이 날을 기억할 것이다. 상금은 백만 달러가 넘는다. 그 돈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 90년. 90년 전쯤 이 여행을 떠날 때가 기억난다. 내 집, 내 가족, 내 이름인 아녜스 아녜스 곤히야 브약스히야. 모두가 만족스러워 하는 걸 느낄 수 있다. 나의 선한 일이 결실을 맺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하느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마더 테레사